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 양양의 역사와 문화재



襄陽文化院

# 앙앙8경

1경



## 남대천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온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에서 크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분봉의 강이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2경



##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 『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3경



##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솔령(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러 졌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운집한다.

4경



## 주전골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염수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5경



## 하조대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벽위에 우뚝 솟아 있는 육각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앞 바위에 하조대 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6경



## 죽도정

죽도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동근 돌이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7경



## 남애항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1종 국가 어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야산(陽也山)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어판장에는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어촌 체험 항이다.

8경



##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월당 김시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 Contents

## 양양의 역사

선사시대	6
상고시대	6
삼국시대	7
고려시대	8
조선시대	9
대한제국	14
일제강점기	15
대한민국	18

낙산사 일원	38
낙산사	39
낙산사 홍예문	40
낙산사 담장	41
의상대	42
낙산사 흥련암	43
오산리 선사유적	44
구룡령 옛길	45
하조대	46
설악산천연보호구역	47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48
명주사 동종	49
명주사 부도군	50
명주사	51
김택준 가옥	52
이두형 가옥	53
김성래 가옥	53
조규승 가옥	54
동해신묘	55
기구회첩	56
영혈사 아미타불도	57
서림사지석조비로나불좌상	58
서림사지 삼층석탑	59
양양 수동골상여소리	60
양양 상복골농요	61
탁장사	62
범부리 고인돌	63
콩콩산	64
동명서원	65

## 양양의 문화재

양양군 지정 문화재 목록	22
진전사지 삼층석탑	24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25
진전사지	26
선림원지 삼층석탑	27
선림원지 석등	28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29
선림원지 승탑	30
선림원지 (터)	31
오색리 삼층석탑	32
양양 오색리 약수	33
낙산사칠층석탑	34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35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 공중사리탑 · 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36

# 양양의 역사



## 선사시대

- ❖ 50 ~ 20만 년 전 손양면 도화리 구석기시대 유적.
- ❖ BC 6,000년 손양면 오산리 신석기시대 유적.
- ❖ BC 3,000 ~ 2,000년경 손양면 가평리 초기철기 유적.



덧무늬토기



석기류



토제인면상

## 상고시대

- ❖ BC 127 이전 성읍국가형태인 예국(濊國)이 형성.
- ❖ BC 127 한무제(漢武帝) 원삭(元朔) 2년 창해군을 설치.
- ❖ BC 109 한무제(漢武帝) 원봉(元封) 2년 임둔군을 설치.
- ❖ BC 82 임둔군은 현도군에 편입.
- ❖ BC 75 낙랑군은 영동7현에 동부도위(東部都尉) 설치.
- ❖ AD 30 후한은 동부도위를 폐함. 자치국가 동예 성립.

### 동예(東濊)

기원전 3세기 이전 ~ 3세기경에 한반도 동해안 일대에 자리 잡았던 한민족의 초기고대국가의 하나이다.

예(濊)라고 불렸으나, 넓은 의미의 예와 구별하기 위해 통상 '동예'라고 부른다.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함경남도 원산으로부터 남으로 강원도 강릉(명주)에 이르렀음.



## 삼국시대 (BC 109~935)

- ❖ 313년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 이문현(伊文縣) 칭함.
- ❖ 671년 통일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 낙산사 창건함.
- ❖ 689년 신문왕 9년 원효대사가 영혈사를 창건함.
- ❖ 757년 경덕왕(景德王) 16년 익령현(翼嶺縣)으로 개칭.
- ❖ 804년 애장왕 5년 선림원(禪林院)의 범종(梵鐘) 조성.
- ❖ 821년 조계종조(曹溪宗祖)인 도의국사 진전사 주석함.



영혈사



진전사



홍각선사비

낙산사 원통보전





## 고려시대 (918~1392)

- ❖ 1221년 고종 8년 거란병의 침략을 잘 방어한 공으로 읍호를 양주(襄州)로 개칭하고 방어사(防禦使)가 파견됨.
- ❖ 1253년 몽골군 침략 때 결사항쟁 했으나 종과부적으로 양주성은 함락되고 부병과 부민들은 몰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음.
- ❖ 1257년 몽골군에 항복한 사건으로 읍호를 덕령(德寧)으로 격하하고 감무(監務)를 둬.
- ❖ 1260년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양주로 읍호를 복귀(復歸)하고 지양주사(知襄州事)를 두고 별호양산(別號襄山)이라 함.

양양에는 이미 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었다. 고려에서 중사(中祀)의 예(禮)로 치제(致祭) 함.



동해신묘



동해신묘중수기사비

- ❖ 1330년 충숙왕 17년경 강릉도 존무사(存撫使) 안축(安軸)의 명으로 양양향교(襄陽鄉校)를 중건함.



## 조선시대 (1392~1897)

- ❖ 1397년 태조 6년 왕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양주부(襄州府)로 승격하고 태종 13년에는 양주도호부(襄州都護府)로 개칭.
- ❖ 1416년 태종 16년에 양양(襄陽)으로 고쳐 현재까지 존속 됨.



양양 뜻 해 오름의 고장 하늘이 붉는 고장

- ❖ 1466년 세조대왕은 윤3월 12일에 거동, 낙산사를 중창케 하고 다음날 강릉 연곡리에서 농가경연을 열어 농가를 잘 부른 양양 관노 동구리(同仇里)에 포상하고, 악공(樂工)의 예(禮)로 어가(御駕)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양문화원은 매년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 1490년 성종 21년에 강릉 안인포의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양양 조산에 옮기고 대포영(大浦營)이라 칭함.
- ❖ 1520년 중종 15년 대포영에 높이 12척, 둘레 1,469척 석성을 축조 하였다가 인종 4년(1545)에 적합지 못해 혁파(革罷)함.
- ❖ 1529년 양양인 이봉(李尙)을 대포수군만호(정3품)로 임명된 사실이 지난 2011년 3월 21일 양양지역 전주이씨 문중 선묘 이장 중 묘지석(墓地石)이 출토되면서 밝혀짐.
- ❖ 1561년 악공 허억봉(許億鳳)은 장악원의 첨정 안상(安常)에 의해 적보(笛譜)를 만들었다. 허억봉은 양양관노로 10대 중반에 대금연주에 능함을 인정받아 악공(樂工)으로 불려가 장악원(掌樂院)의 최고지휘자이자 전악(典樂)을 수십 년간 역임.



허억봉의 적보

- ❖ 1596년 선조 29년 이전에는 소솔령(所率嶺)이라 부른 것을 오색령(五色嶺)으로 개칭,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오색령



- ❖ 1609년 양양부(襄陽府)에는 8월 25일 미시(未時)에 품관(品官)인 전문위(全文緯)의 집 앞에 세숫대야처럼 생긴 것이 나타나, 땅에 내릴 듯 하더니 곧 올라갔는데, 우레 소리가 몇 번 나더니,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다가 그침.

《벌에서 온 그대》는 1609년 음력 8월 25일 강원도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되었다는〈광해군일기〉의 기록을 소재로한 공상 과학 SF 로맨스 드라마로 SBS에서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방영된 바 있음.

- ❖ 1628년 양양부사 조위한(趙緯韓)이 노경복·최정립·이현일 등과 상의 조산리에 조인벽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충현사(忠賢祠)를 설립, 위패를 모시고 동명서원(東溟書院)이라 함.



양양읍 조산리 동명서원

- ❖ 1666년과 1683년에 강릉·원주에서 각각 강상죄 발생으로 강원도의 도호(道號)를 양양의 ‘양’ 자를 넣어 2회 개칭하였음.

原襄道

江襄道

- ❖ 1682년 숙종 8년에 양양부사 최상익이 양양읍 구교리의 향교를 지금의 자리(林泉里)로 이건 함.



양양향교 대성전과 명륜당

- ❖ 1709년 양양부사 이해조(李海朝)는 김창흠(金昌翕)과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 시(詩)를 읊었는데 일명 양양별곡 이라 함.



이해조의 현산 30경(영)

- ❖ 1727년 유경시(柳敬時)는 양양부사 재임시 선정(善政)한 공로로 양양주민이 낙산사 이화정 앞 오동나무로 양양금(襄陽琴)을 제작 기증한 것을, 경상북도는 유형문화재 제314호로 지정, 창랑보(滄浪謠, 악보)와 함께 안동시 소재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박물관'에 소장 전시 하고 있음.



안동시 소재 양양금



- ❖ 1800년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양양부사로 봉직할 당시 희대(稀代)의 목민관으로 공직기강확립과 이용후생의 생태정신을 발현 황장목 판교(黃腸木板橋)를 놓았고, 양양에서 녹봉은 1만 2천량을 받았는데 “양양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에서 1만 냥을 받았고 녹봉으로 2천 냥을 받았다”는 경관녹봉론(景觀祿俸論)을 제시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음.



연암 박지원의 초상



연암집

- ❖ 1896년 고종 33년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행정구역 명칭이 강릉부 양양군에서 강원도 양양군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 대한제국 (1897~1910)

- ❖ 1906년 한서 남궁억(翰西南宮億) 선생은 양양군수로 부임한 후 군민 대표들을 소집 향회를 개최 기부금을 모금하고, 유림들과 서당계(書堂契)의 협조로 4천환을 재원으로 동헌 뒷산에 근대식 학교인 현산학교를 설립 함.

근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려는 지역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각 가정에서 한 명씩의 자제를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노력한 결과 개교식 때는 200명의 학생이 모였음.



현산학교 수업증서



현산학교 옛터

- ❖ 1908년 양양군수 최종락은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동해신묘의 신위(神位)를 땅에 묻고 신묘를 훼손한 며칠 후,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토와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守護神)이 살아 있음을 입증 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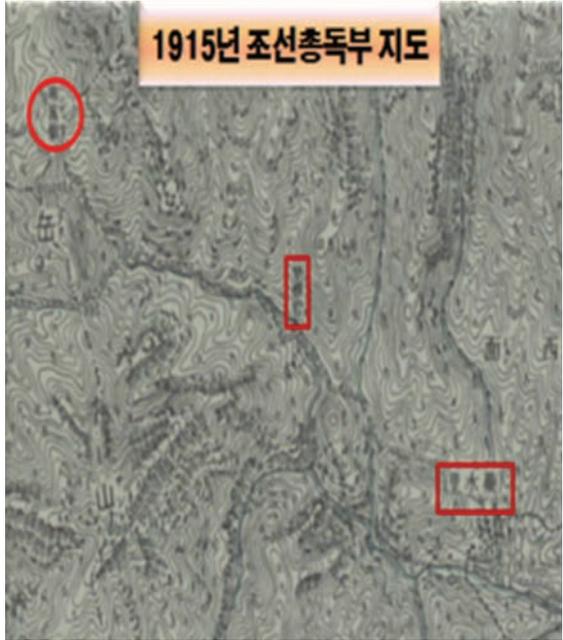


## 일제강점기 (1910~1945)

- ❖ 1913년 조선총독부 관보에 오색령 도로를 3등 도로로 고시함.
- ❖ 1914년 군과 면의 폐합에 따라 부내면·위산면·부남면을 통합하여 군내면으로, 동면·남면을 손양면으로, 강선면·사현면을 강현면으로 도문면·소천면을 도천면으로 서면·현북면·현남면은 그대로 두어 7개 면을 관할하였음.

- ❖ 1915년 '한국 근대지도' 제작시 최초로 한계령 지명 표기 함.

- ❖ 1919년 양양의 3·1만세 운동은 이석범과 조화벽이 독립선언서를 숨겨 들어온 것이 도화선이 되어 4월 3일~4월 9일 까지 7일간



7개 면 132개 마을 15,000여 명이 참여 치열하게 전개된 곳으로, 사망은 함흥기 열사 외 11명, 부상 43명, 체포 142명 실형은 3년 이내 73명이고, 태형은 수백 명이나 됨.



이석범 선생



조화벽 지사



3·1만세운동 기념비

- ❖ 1923년 오색령 도로를 2등 도로로 만들어 달라고 영서의 4개군(춘천·홍천·양구·인제)은 강원도청에 진정서를 육속(陸續)제출하였고, 영동의 강릉·삼척·울진군에서도 역장동성(亦將同聲) 협찬하였다고 매일신보에 보도 함.



- ❖ 1930년 양양군민의 교섭으로 4월 18일 조침령도를 기공 함.
- ❖ 1931년 양양·인제에 호소식이 전해지자, 양양군수 박재수는 인제군수 김극일과 인제군청에서 오색령도로에 관한 원만한 협의를 마치고 오색령을 통해 귀청하였다고 매일신보에 보도 됨.



- ❖ 1936년 병자년 포락 때 사망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창선(元昌善, 당시 양양군 행정계장)이 글을 쓰고 비를 세웠다고 함.
- ❖ 위도비(慰悼碑)에는 양양에서 사망 584명, 부상 500명, 가옥유실, 가옥침수, 농경지 침수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전하고 있음.
- ❖ 1937년 도천면 속초리가 속초면으로 개칭, 1942년에는 속초읍으로 승격, 1963년 속초시로 승격 양양에서 분리 됨.



현산공원 위도비

## 대한민국 (1948 이후)

- ❖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국토분단으로 38°선 이남인 현남면과 현북면, 서면의 남쪽 일부가 강릉군에 편입되었고, 양양면, 손양면, 강현면, 죽왕면, 토성면은 공산치하에 들어감.
- ❖ 1948년 선림원 터에서 출토된 범종은 1949년에 월정사로 이관, 보존되어 오던 중 6·25전란으로 월정사가 소실될 때 함께 파손되었는데 현재 그 일부와 복원된 범종을 함께 국립춘천박물관에 보전 전시하고 있음.



선림원지 범종의 파손 모습



복원된 선림원지 동종

- ❖ 1951년 한국전쟁 시기인 4월에 재 북진으로 양양군은 수복되어 군자치위위원회가 구성되고, 7월 4일부터 북 양양은 군정통치(軍政統治) 지역으로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 됨.



양양군 치안대

- ❖ 1953년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낙산사의 원통보전·범종각 등을 양양군민과 육군 1군단장 '이형근'의 도움으로 복원 됨.
- ❖ 1954년 11월 17일 민정이양과 함께 『수복지구임시조치법』에 따라 현남면은 명주군에 편입되고 현북면과 서면 일부는 다시 본군에 환원되어 1읍 7면이 됨.
- ❖ 1959년 국무원은 전국 지명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인제군 북면지명위원회에서는 한계령 유래를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 영의 나즌영으로서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 이라고 하나 오색이영 이라고도 함.”으로 보고 하였음.
- ❖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 분리되고 죽왕면·토성면이 고성군에 편입, 명주군의 현남면이 본군에 환원 되어 6개면이 됨.
- ❖ 1972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1월 6일 권금성 비룡폭포·피골이 속초시에 편입됨.
- ❖ 1973년 서면 명개리는 흥천군 내면에 편입되고 손양면 상왕도리 일부는 양양면에 각각 편입 됨.
- ❖ 1979년 5월 1일 양양읍으로 승격 됨.
- ❖ 2000년 동해신묘지(東海神廟址)는 강원도기념물 73호로 지정되었다. 1993년에 정전



1동을 복원하였으나 『여지도서』 양양군 단묘편에 동해신묘는 정전 6칸, 신문 3칸, 전사청 2칸, 동·서재 각 2칸이라고 기록 되어있어 원형 복원이 요구됨.



양양국제공항

❖ 2002년 양양국제공항 개항(손양면 학포리·동호리 73만평)

❖ 2002년 12월 5일에 서울양양 고속도로 또는 고속국도 제60호 선으로 지정된 노선이며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기점으로 강원도 양양군이 종점이다. 동서 150.2km를 잇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로 2017년 6월 30일 개통이 되어 90분대 주파 가능함.



서울양양고속도로

❖ 2006년 양양양수발전소는 양양군 서면 영덕리에 위치하며 1996년 착공 2006년 9월에 준공 된 국내 최대규모 양수 발전소이다. 250MW용량 발전기 4개로 구성되어 총발전 설비용량 1,000MW로 상부댐으로 물을 끌어 올리는데 11시간 14분이 소요되고, 상부에 저장된 물로 최대 9시간 24분간 전기를 생산 할 수 있음.



양양에너지월드

# 양양의 문화재



## 양양군 지정 문화재 목록

연번	지정별	문화재명	지정일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1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22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1966.02.28.	국유	양양군	강현면 화채봉길 313
2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439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1966.02.28.	국유	양양군	강현면 화채봉길 368
3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444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1966.09.21.	국유	양양군	서면 서림리 424
4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445	양양 선림원지 석등	1966.09.21.	국유	양양군	서면 서림리 424
5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446	양양 선림원지홍각선사탑비	1966.09.21.	국유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
6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447	양양 선림원지 승탑	1966.09.21.	국유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
7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497	양양 오색리 삼층석탑	1968.12.19.	국유	양양군	서면 약수길 132
8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499	양양 낙산사 칠층석탑	1968.12.19.	낙산사	낙산사	강현면 낙산사로 100
9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362	양양낙산사건칠관음보살좌상	2003.02.03.	낙산사	낙산사	강현면 낙산사로 100
10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723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 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2011.11.01.	낙산사	낙산사	강현면 전진리
11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394	양양오산리선사유적	1997.04.18.	국유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60외
12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495	양양낙산사일원	2008.12.18.	낙산사	낙산사	강현면 낙산사로 100
13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27	양양낙산사 의상대와 흥련암	2007.12.07.	낙산사	낙산사	강현면 낙산사로 100
14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29	구룡령 옛길	2007.12.17.	양양군	양양군	서면 왕생골길 161
15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68	양양 하조대	2009.12.09	국유,사유	양양군	현북면 조준길 99
16	국가지정문화재	천기 171	설악산천연보호구역	1965.11.05.	국유,사유	양양군	오색리, 둔전리, 물갑리
17	국가지정문화재	천기 229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1970.11.05.	양양군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122-3외
18	국가지정문화재	천기 529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2011.01.13.	국유	양양군	서면 약수길 45



연번	지정별	문화재명	지정일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19	도지정문화재	자유 33	낙산사홍예문	1971.12.16.	낙산사	낙산사	강현면 뒷너루 1길 19
20	도지정문화재	자유 34	낙산사담장	1971.12.16.	낙산사	낙산사	강현면 낙산사로 100
21	도지정문화재	자유 48	의상대	1974.09.09.	낙산사	낙산사	강현면 뒷너루 1길 19
22	도지정문화재	자유 64	양양명주사동종	1980.02.26.	명주사	명주사	현북면 어성전길 93-35
23	도지정문화재	자유 90	양양김택준가옥	1985.01.17.	김대식	최순숙	현남면 인구중앙길 89-87
24	도지정문화재	자유 91	양양이두형가옥	1985.01.17.	이재철	이재철	서면 들돌길 284-1
25	도지정문화재	지기 52	양양진전사지	1982.11.03.	국유및사유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37외3
26	도지정문화재	지기 53	양양선림원지	1982.11.03.	국유	양양군	서면 황이리 424
27	도지정문화재	지기 73	양양동해신묘지	2000.01.22.	양양군	양양군	양양읍 동해신묘길 34
28	도지정문화재	문자 36	낙산사홍련암	1984.06.02.	낙산사	낙산사	강현면 낙산사로 98-19
29	도지정문화재	문자 79	양양김성래가옥	1985.01.17.	김희원	김희원	현남면 북분안길 106-9
30	도지정문화재	문자 80	양양조규승가옥	1985.01.17.	정상철	정상철	현남면 포매리 106-1
31	도지정문화재	문자 105	양양향교	1985.01.17.	향교재단	향교재단	양양읍 거마천로 52-20
32	도지정문화재	문자 116	양양명주사부도군	1991.02.25.	명주사	명주사	현북면 어성전길 93-229
33	도지정문화재	문자 119	양양 서림사지 석조비로사나불 좌상	1996.02.25.	국유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2115
34	도지정문화재	문자 120	양양서림사지삼층석탑	1996.09.30.	국유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2115
35	도지정문화재	문자 154	양양 기구회첩	2013.01.11.	기구회	기구회	손양면 학포길33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36	도지정문화재	문자 166	양양 영혈사 아미타불도	2015.03.06.	영혈사	영혈사	양양읍 불당골길 346 영혈사
37	도지정문화재	무형 25	양양 수동골상여소리	2013.04.12.			
38	도지정문화재	무형 26	양양 상복골농요	2013.04.12	조광복	안광혁	강현면 북골길 265-22

국가기정(18): 국보 1, 보물 9, 천연기념물 3, 사적 2, 명승 3  
 도지정(20) : 유형문화재 6, 기념물 3, 문화재자료 9, 무형문화재 2



국보 제122호

## 진전사지 삼층석탑

陳田寺址 三層石塔

우리고장에 있는 문화재 중 유일한 국보로 강현면 둔전리에 있다. 국보 제122호인 이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석탑으로 2층기단을 갖추고 있으며 상륜부는 노반(露盤)만이 남아 있고, 삼층 옥개석 윗면에 직경 10cm, 깊이 10cm의 찰주공(擦柱孔)이 남아 있다. 이 석탑의 정확한 건립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8세기말~9세기초로 생각되며, 조각 기법이 매우 섬세하고 우수하여 신라하대의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둔전리 진전사지 삼층석탑에서 계곡을 따라 600m되는 작은 언덕인 불두정(佛頭亭)이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지(寺址)는 서북쪽에 위치한다.

이 부도는 탑신부(塔身部)가 팔각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기단부는 석탑에서와 같이 방형(方形) 2중기단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도의 가장 특성을 이루는 부분은 탑신 윗부분이 8각이어서 팔각원당형을 따르는 듯 보이나 기단부는 일반석탑에서와 같이 2중기단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로 만드는 수법은 다른 곳에서는 예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특이한 양식이라 하겠다.

보물 제439호

##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陳田寺址 道義禪師塔



도기념물 제52호

## 진전사지

陳田寺址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도의선사가 오랫동안 주석한 곳이며 일연선사도 이곳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1497년까지 사찰이 존속하였으나 어느시기엔가 폐사되어 일제강점기까지 둔전사로 불리워 오다 발굴조사 등을 통해 진전사로 확인되어 최근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宗祖)인 도의선사와 연계한 사상성이 부각되는 절터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2005년 6월 사찰을 다시 지었다.



보물 제444호

## 선림원지 삼층석탑

禪林院址 三層石塔

양양에서 홍천방면의 56번국도변의 미천골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약 1.5km되는 미천골계곡 건너편에 축대를 쌓아 놓은 곳이 선림원지인데 그 동편으로 법당지가 있어 현재도 방향의 주춧돌(폭 60cm)이 3~4m 간격으로 여러개 묻혀 있다.

선림원지 삼층석탑은 2층기단 위에 세운 방향의 삼층석탑으로 전형적인 신라석탑의 일반형이다.

기단부의 짜임새나 각 부분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때로 추정되며, 1965년 복원공사 전에 기단부에서 소탑(小塔)64기와 동탁(銅鐸)1개가 발견되었다.



보물 제445호

## 선림원지 석등

禪林院址 石燈

선림원지 서북쪽에 있으며, 1965년 이전에는 붕괴되어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그 해 11월 수습 복원하여 석등의 모습을 되찾았다. 높이 2.92m의 이 석등은 보물 제44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웃해 있는 삼층석탑 및 부도와 1948년 10월에 발견된 「貞元 20년」 銘, 즉 신라 애장왕 5년(804)에 만들어진 동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라 헌강왕 12년(886)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66년 9월 21일 보물 제446호로 지정되었다. 귀부와 용모양의 머릿돌인 이수만 남아 있고 비신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병무랑중 김원(金蕓)이 글을 짓고 비문은 운철(雲澈)스님이 진나라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서 썼으며 차성현령(車城縣令) 최형은 전액(篆額)을 썼다. 1,340자 정도로 추정되는 비문 중 현재까지 약 710자를 확인하여 비문에 복원하였다.

보물 제446호

##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禪林院址 弘覺禪師塔碑



보물 제447호

## 선림원지 승탑

禪林院址 僧塔

이 부도는 선림원지 삼층석탑, 석등, 홍각선사탑비와 함께 절을 구성 하였던 것으로 1965년 11월에 각 부재를 수습하여 현재의 자리에 복원 하였는데 원래의 위치는 뒷산 중턱으로 약 50m쯤 올라가야 한다. 부도의 형식은 지대석위에 상중하로 형성된 기단부, 그 위에 탑신부, 옥개석, 상륜부를 차례로 놓았던 것인데 현재는 기단부만 남아 있다. 보물 제447호로 이 부도의 건립 연대는 신라 정강왕 원년(886)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기념물 제53호(1982.11.3)로 서면 황이리 424번지에 위치한다. 1948년 10월에 정원(貞元) 20년 명문(銘文)이 있어 신라 애장왕 5년(804)에 주조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신라 범종이 출토된바 있어 유명하다. 장대한 석축위에 있는 약 3,000평의 절터에 삼층석탑, 석등, 부도, 홍각선사탑비 등 4점의 보물이 자리하고 있다.

선림원지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선림원은 804년경에 창건되었으며, 그 후 홍각선사가 선림원에 살았던 때 또는 그가 열반한 직후에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말미암아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절터에는 정면 3칸, 측면 4칸의 금당자와 조사당지의 주초석이 노출되어 있으며, 1985년에 동국대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를 확인하고 각종유물이 출토되어 양양지역의 찬란한 불교 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도기념물 제53호

## 선림원지 (터)

禪林院址



보물 제497호

## 오색리 삼층석탑

五色里 三層石塔

서면 오색약수터에 이르러 주전골계곡을 따라 약 2km를 올라가면 오색석사라고 전해 내려오는 절터가 있는데 이절은 성주산문의 개산조 무염이 12세때 출가한 곳이다. 최치원은 이곳에 오석이 있어 오석사라고 부른다고 했다. 절터는 약 700평 정도로 크지는 않으나 가운데에 신라 시대의 주춧돌이 있는 법당지와 층계의 난간석이 남아 있으며 서쪽에 삼층석탑 1기가 서 있다.

이 석탑은 1945년 사회적 혼란기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훼손된 것을 1971년 12월에 복원하여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부분적으로 손실된 곳이 있다. 한편 동쪽에도 석탑 한 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기단석만 남아 있으며 주위에 석탑의 부재로 추정되는 것들이 주위에 널려있다. 석탑의 상륜부는 없어져서 그 모습을 알 수 없다. 보물 제497호로 탑의 형식이나 제작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오색약수는 1500여 년 전 오색석사의 승려가 반석위에서 용출하는 천맥(泉脈)을 발견하고 무심히 한 모금 마신 결과 약수로 판명되었다.

당시의 오색석사 후원에 오색화가 피는 특이한 수목이 있었기에 그 후 오색약수라 칭하게 되었다.

오색약수는 설악산 대청봉으로부터 서남 8km, 양양에서 서쪽 20km 지점인 남설악에서 가장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가을 단풍의 명소인 주전골 입구에 위치한 곳으로 산성과 탄산수로 암석 틈에서 은실 같은 줄기로 끊임없이 샘솟아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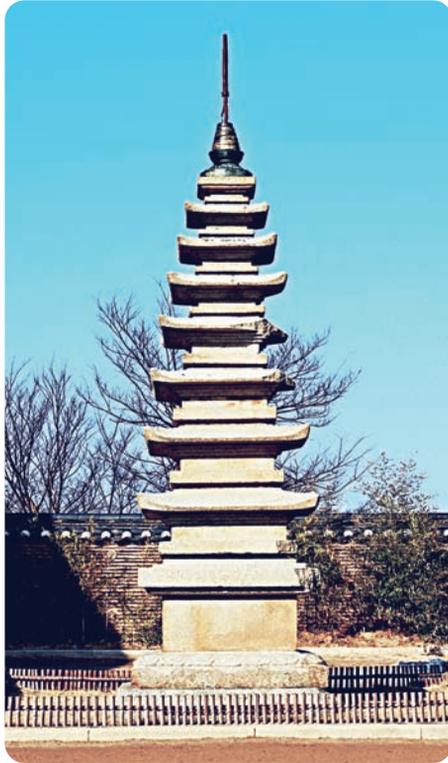


위장병과 신경쇠약, 피부병, 신경통에 특효하며 특히 메밀꽃 피는 가을에 효력이 양호하다 하며 사시사철 탐방객이 끊일 날이 없다.

천연기념물 제529호

## 양양 오색리 약수

襄陽 五色里 藥水



보물 제499호

## 낙산사칠층석탑

洛山寺七層石塔

단층기단 위에 세워진 높이 6.2m의 이 탑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이 있으나 상륜까지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이 각각 한 장의 돌로 되어 있다. 탑신보다 넓고 거의 같은 두께의 탑신 괴임돌이 있는 것이 이탑의 특이한 양식의 석탑이다. 상륜부에는 청동으로 만든 복발(覆鉢)과 보륜(寶輪), 보주(寶珠)가 청동제 찰주(擦柱)에 꽂혀 있는데 그 형태가 중국 원나라시대의 라마탑을 연상케 한다.

본래 이 탑은 창건 당시에 삼층이던 것을 조선 세조 13년(1467)에 현재의 칠층으로 조성했다.

그후 한국전쟁 때 손상되었다가 1953년 4월 낙산사 중건과 함께 복원하였다.



보물 제1362호

##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洛山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낙산사 원통보전의 주존 건칠 관세음보살상은 조선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불상으로 나무·종이·천으로 만든 불상위에 건칠을 한 뒤에 도금한 것으로서 높게 마련된 불단위에 자리하고 있다. 머리에는 화염보주가 둘러지고 초화문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높은 보관을 쓰고 있으며, 일설에는 한국전쟁이후 양양을 화일리에 있는 '영혈사'에서 모셔 왔다고 전해오며 적당한 크기로서 손상없이 잘 보존되어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 불신의 높이가 112cm로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크기로 허리를 곧추 세우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 마치 굽어 살펴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사각형에 가까우면서도 각짐없이 둥글고 탄력적인 얼굴에 엄숙한 듯 단정한 눈·코·입, 삼도(三道)가 뚜렷한 목과 두드러진 가슴표현, 가늘프면서도 섬세한 손과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옷 주름 표현, 가슴밀을 수평으로 가로지른 내의깃과 화려한 영락(瓔珞)장식등은 고려후반기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조선초기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2005년 산불발생때 스님들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 피해를 입지 않았다.



보물 제1723호

## 양양 낙산사 해수 관음 공중사리탑 · 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 ① 해수관음공중사리탑

조선 숙종 9년(1683) 낙산사 관음굴[觀音窟·홍련암] 불상을 개금하여 새로 모실 때 상서로운 빛과 향기가 법당에 가득 차더니 공중에서 밝은 구슬 한 알이 탁자에 떨어졌다. 유리와 같이 깨끗하고 보배와 같이 밝게 빛나는 구슬이었다. 그 이전 광해군 11년(1619)에도 관음굴 중건을 마치고 상량하는 날 파랑새가 날아오르면서 울었다. 의상이 관음굴에서 동해 용왕으로부터 여의보주를 받은 것까지 하면 이러한 이적(異蹟)은 세 번째이다. 석경(釋謙)스님은 이 구슬을 봉안하기 위해 숙종18년(1692) 공중사리탑을 세웠다. 8각원당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부도탑이다. 전체 높이는 3.55m이고 각 부재는 흙을 파서 끼우도록 되었으며, 탑신은 구형(球形)이며 옥개는 8각인데 상륜부는 양련(仰蓮)과 복발(覆鉢), 보륜(寶輪), 보주(寶珠)등을 하나로 조각하였다.



### ② 해수관음공중사리탑 비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숙종18년 1692)을 세우게 된 내력과 관음의 영험을 기록한 비문이다. 비문에는 일찍이 신라 의상과 원효가 친견했던 관음도량임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광해군 11년(1619)에 관음상을 봉안한 전각이 중건되었는데 숙종 9년(1683) 관음상 색이 바래서 개금할 때 하늘에서 명주(明珠) 하나가 떨어져 이를 봉안하여 탑을 만들었다. 이에 연유하여 비의 이름을 해수관음공중사리비 즉 “바다의 관음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사리를 봉안한 비”라 한 것이다. 숙종 19년(1693) 가신대부 강원도방어사 겸 춘천도호부사 이현석(李玄錫)이 비문의 글을 짓고 다음해인 숙종 20년(1694)에 이 비를 세웠다.



### ③ 사리장엄구 일괄

2005년 4월 동해안에서 일어난 산불로 천년 고찰인 낙산사가 화마(火魔)를 입었을 때 기울어졌던 해수관음공중사리탑을 복구하던 중 2006년 4월 28일 사리탑을 해체 보수하던 중 탑신 윗면 원형 사리공 안에서 진신사리가 봉안된 사리장엄구 일괄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노란색 비단 보자기에 싸인 원형 청동합 안에 “강희(康熙) 31년”으로 적힌 연기(緣記)가 들어 있어 숙종 18년인 1692년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리장엄구는 청동합, 은합, 금합, 호박사리병, 사리호보자기, 금합 겹보자기, 금합 홀보자기, 은합 겹보자기 등과 강희 31년경 조탑시주질, 대중질, 진언문의 문서들이 청동합 안에 봉안되어 있다. 이 사리장엄구는 해수관음공중사리탑,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723호로 지정되었다.





사적 제495호

## 낙산사 일원

洛山寺 一圓

신라 문무왕 11년(671)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 해변의 굴안에 머무신다는 말을 듣고 굴 속에 들어가 예불하던 중 관음보살이 수정으로 만든 염주를 주면서 절을 지을 곳을 알려주어 이 곳에 사찰을 창건하고 낙산사라 하였다 한다.

현안왕 2년(858) 범일대사가 중창하였으나 몽고란으로 소실되었다. 조선 세조 13년(1467) 왕명으로 크게 중창하였고 예종 원년(1469)에도 왕명으로 중건이 있었으며, 인조 9년(1631)과 21년(1643)에 각각 재차 중건이 있었으나 정조 원년(1777) 화재를 당하여 다음해 중건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또다시 소실되어 1953년 중건되었으며, 2005년 화재로 소실된 원통보전을 비롯한 일체의 전각을 복원·중창하였다.



신라 문무왕 11년(671)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 해변의 굴안에 머무신다는 말을 듣고 굴 속에 들어가 예불하던 중 관음보살이 수정으로 만든 염주를 주면서 절을 지을 곳을 알려주어 이 곳에 사찰을 창건하고 낙산사라 하였다 한다.

현안왕 2년(858) 범일대사가 중창하였으나 몽고란으로 소실되었다. 조선 세조 13년(1467) 왕명으로 크게 중창하였고, 예종 원년(1469)에도 왕명으로 중건이 있었으며, 인조 9년(1631)과 21년(1643)에 각각 재차 중건이 있었으나 정조 원년(1777) 화재를 당하여 다음해 중건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또다시 소실되어 1953년 재건되었으며, 2005년 4월 5일 산불로 인하여 소실 된 것을 2009년 10월 12일 복원 불사하였다.

도유형문화재 제35호

## 낙산사 洛山寺



도유형문화재 제33호

## 낙산사 홍예문

洛山寺 虹霓門

낙산사의 문루(門樓)인 홍예문은 조선 세조 12년(1466) 왕이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중수하고 이 홍예문을 건립하였다고 하며 홍예는 당시 강원도의 고을 수에 맞추어 26개의 홍예석을 써서 조성하였다고 전해 온다.

홍예 위의 누각은 김유성의 낙산사도에 홍예문 누각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18세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보며 문루(門樓) 좌우의 자연적지형을 이용하여 홍예석 주위에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 문루를 세운 것이 아주 특이하다.

누각은 2005년 4월 5일 산불로 소실되었으며, 2009년 10월 12일 복원하였다.



낙산사의 법당인 원통보전과 칠층석탑을 방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담장은 뒷편의 길이가 5.8m, 좌측 21m, 우측 8m가 본래의 상태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시 연결하여 총 220m를 복원하였다.

높이가 3.76m에 달하는 이 담장은 그 위치에 따라 2단의 장대석기단 위에 다시 초석을 놓은 것과 2,3단의 넷돌로 기단을 쌓은 두 종류가 있다.

이 담장은 지세에 따라 층이 나게 평가와, 강회, 진흙을 차례로 다시 쌓았는데 6~7단의 평가외를 쌓은 다음 상하가 서로 엇갈리게 원형의 화강석을 박아 재료 및 형태에서 변화를 주고 특히 담쟁이 넝쿨이 담장을 덮고 있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도유형문화재 제34호

## 낙산사 담장

洛山寺 牆



도유형문화재 제48호

## 의상대

義湘臺

신라 문무왕 11년(671)에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의상대사의 좌선처였던 이곳에 정자를 짓고 의상대라 명명한 것이다. 의상대사가 처음 낙산사를 창건할 당시 자주 이곳에 와서 입정(入定) 하였으므로 이곳은 옛부터 의상대라고 불리웠다고 한다. 언제지었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중 의상대기문으로 보아 16세기 이전에 의상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6년 폭풍으로 파괴되어 1937년 재건하였으며 1975년 7월 중건, 1995년 8월에 복원한 육각정은 낙산사에서 흥련암의 관음굴로 가는 길 해안 언덕위에 있어 일출 명소로 꼽히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운집하고 있다.



낙산사 동쪽 해변 암벽위에 있는데 관음굴이라고도 한다. 신라 문무왕 11년(671)에 의상 대사가 입산 도중 돌다리위에 이상한 청조를 만나 쫓아가니 석굴속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대사는 더욱 이상하게 여기고 석굴앞 해중 반석위에 정좌하여 7일 7야를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니 깊은 바다속에 홍련이 솟아올라 그 홍연속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심중소원을 간절하게 기원하니 만사가 뜻대로 성취되어 무상대도를 얻었으므로 홍련암이라 이름 하였다 한다.

도문화재자료 제36호

## 낙산사 홍련암

洛山寺 紅蓮庵



사적 제394호

## 오산리 선사유적

熬山里 先史遺蹟

이 유적은 1977년 주변에 있는 쌍호를 매립하기 위해 토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토기와 석기가 발견되어 처음 알려진 후 서울대 박물관에 의해 1981~1987까지 6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모두 14기의 원형집자리를 뽕족밀, 납작밀, 덧무늬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우리나라 신석기유적으로서는 처음으로 돌톱, 조합시어구, 흑요석, 점토 제알굴상이 출토되었다.

또한, 방사선탄소 연대측정 결과 이 유적의 연대가 8,000년전으로 확인되어 이제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신석기유적중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동해안 선사문화의 규명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나아가 동아시아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 되고 있다.



구룡령 옛길은 옛날 양양에서 흥천을 거쳐 한양으로 입경하던 높이 1,100m의 옛길로서 영북지방에서 영서로 연결되는 다른 영길 보다 산세가 평탄하여 옛 선비들이 과거보러 한양으로 갈 때 아홉 마리의 용(龍)의 영험을 빌면서 이 영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명종 9년(1554)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이 구룡령의 자연을 읊은 시를 비롯하여 많은 관리와 문인들이 시부(詩賦)로 노래했다.

구룡령의 이름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이 영을 넘고자 갈천약수로 목을 축이고 아흔 아홉 구비를 쉬엄쉬엄 돌아 넘었다는 전설이 붙어있다.

이 길을 걸어 오르다보면 중간 중간에 횃돌반쟁이, 묘반쟁이, 솔반쟁이 등 표지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에 매혹 된다.

명승 제29호

## 구룡령 옛길

九龍嶺



명승 제68호

## 하조대

河趙臺

조선의 개국공신인 조준(趙浚)과 하륜(河崐)이 이곳에서 잠시 은거하였다 하여 두사람의 성을 따서 『하조대』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 정종 때 정자를 건립하였으나 퇴락하여 철폐되었으며, 수차례의 중수를 거듭하여 1940년에 팔각정을 건립하였으나 한국전쟁 때 불에 탄 것을 1955년과 1968년에 각각 재건하였다. 하조대는 동해바다의 절경을 볼수 있는 돌출된 만(灣)의 정상부에 위치하여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의 건물은 1998년 해체복원한 건물로 초익공 굴도리양식의 육모정으로 지붕에 절병통을 얹어 소나무와 함께 주위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고 있으며, 정자 각 앞에는 조선 숙종 때 참판 벼슬을 지낸 이세근(李世權)이 쓴 '하조대'라는 세 글자가 암각된 바위가 있다. 이곳은 인접한 하조대 해수욕장과 함께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양의 관광 명소중의 하나이다.



천연기념물 제171호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雪嶽山天然保護區域

우리나라 3대 명산중의 하나로 금강산과 오대산이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총면적은 354.6km<sup>2</sup>이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양양군과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으로 4개시군에 걸쳐져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어 있다.

설악산의 연중 평균기온은 남한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비교적 저온지대에 속하며, 동해로 연결되어 있어 연중 강우량도 많은 편이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태고의 천연 원시림 상태를 유지하여 현재 보고된 서식동물도 동물류 약 495종, 식물류 822종 등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육상동물은 포유류 28종, 조류 90여종, 파충류 11종, 양서류 9종, 곤충류 약 360종이며 이밖에도 더 많은 동물류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 생물자원의 보고이다.

그러나 이 구역은 최근 국내 제일의 관광지로 개발되어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고 있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철저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29호

##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현남면 포매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백로, 왜가리 번식지이다. 해안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구릉지로서 약 15,000㎡의 넓은 면적에 100년 이상된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매년 2,000~3,000마리의 백로와 왜가리가 도래하여 소나무 상층부에는 왜가리가, 하층부에는 백로가 각각 한나무에 4~5쌍의 집을 짓고 서식한다. 도래시기는 매년 2월말에서 3월 초순경으로 30~40마리가 선착하며 4월중순경에 산란하여 5월중순에서 5월말에 부화하며 10월 말에서 11월초에 필리핀으로 이동하고 있다. 1970년 11월 5일 자로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된 후 백로 및 왜가리의 주된 먹이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20일자로 인접한 포매호를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이 동종은 명주사에 보관되어 있다. 종신(鐘身)의 아랫부분에는 당초문(唐草文)이 유려하게 그려져 있으며, 종신에는 보살상 4구가 그려져 있으며 빈 공간에 범(梵)자가 네곳에 양각되어 있다. 도유형문화재 제64호로 높이 0.83m, 둘레 2.6m로 조선 숙종 30년(1704) 만들어진 것이다.

도유형문화재 제64호

## 명주사 동종

明珠寺 銅鐘



도문화재자료 제116호

## 명주사 부도군

明珠寺 浮屠群

조선후기 도내 소재 부도중에서 가장 빼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부도는 12기로 7기는 원당형이고 5기는 석종형이며, 부도 외에 이곳에는 4기의 비석이 함께 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1994년에 현재의 자리에 모아 보존하고 있다. 도문화재자료 제116호로 지정되어 있다.



명주사는 현북면 어성전리에 위치한 사찰로 고려 목종 12년(1009) 대주대사(大珠大師)와 혜명대사(惠明大師)의 힘으로 이곳 오대산 동쪽 만월산에 터를잡아 사찰을 창건하고 두대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명주사”라 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 고려 인종 원년(1123)에 청련암(淸蓮庵)과 운문암(雲門庵)이 창건되고 조선 숙종 2년(1676)에는 향로암(香爐庵)이 창건되는 등 여러차례의 중건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완전 폐허가 된 것을 1963년에 법당과 삼성각, 추성각이 중건되면서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사찰에는 도 유형문화재 제64호인 명주사 동종과 입구에 부도군(문화재자료 제116호)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사찰 바로 옆에서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는 심산에 조용하게 자리한 산사와 함께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 명주사

明珠寺(전통사찰)



도유형문화재 제90호

## 김택준 가옥

金澤俊 家屋

주소 현남면 인구중앙길 89-87

김택준 가옥은 마을 자체가 산의 계곡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계곡의 입구에 도달하기 전에는 전혀 마을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지형이다. 이 가옥은 마을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경주 김씨 11대손이 거주하고 있다. 집터는 도로에서 4차 정도 성토하여 앞과 양옆에 넓은 마당을 이루고 있다. 집 뒤로는 야산이 있으며 부역에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마당에는 장독대와 야산을 파서 돌로 벽을 만든 약 0.5평 규모의 냉장굴이 있다. 조선후기에 지어진 이 집은 도 유형 문화재 9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남면 두창시변리에 위치해 있다.



이두형 가옥은 도 유형문화재 91호로 조선후기에 건립되었으며 서면 서선리에 있다.

집터는 도로에서 2~3차 정도를 막돌쌓기로 축조하여 성토하였고, 뒤쪽으로 노송이 울창한 야산을 갖고 있으며 앞마당과의 경계를 토담위에 기와를 얹어 놓은 담으로 구획하고 있다. 남쪽의 앞마당에 심으면 길(吉)하다는 대추나무가 두 그루 심어져 있어 풍수에 대한 고려가 엿보여진다.

도유형문화재 제91호

## 이두형 가옥

李斗炯 家屋

주소 서면 들들길 284-1



건축년대 미상의 고가옥으로 현 소유자의 14대 조부가 건립하여 지금에 이르는 집이라 전한다.

본래 초가이던 것을 60년전 지붕을 기와로 바꿨으며, 사랑채와 외양간은 1960년 함석으로 지붕을 개량하였다가 1997년 사랑채를 보수하면서 기와로 다시 바꾸었다. 도문화재자료 79호로 현남면 북분리에 있다.

도문화재자료 제79호

## 김성래 가옥

金成來 家屋

주소 현남면 북분안길 106-11



도문화재자료 제80호

## 조규승 가옥

曹圭承 家屋

주소 현남면 개매길 215-5

건축연대는 1883년 2월 25일로 현 소유자 10대조가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는 집으로 안채와 바깥사랑채로 구분되는 특이하게도 □자형으로 최초 건물은 현 사랑채로 사용되는 건물을 먼저 짓고 그 후에 안채를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도문화재자료 제80호로 현남면 개매길 215~5(현남면 전포매리 106-1)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근 건물 대들보의 상량문에 의하여 건축연도가 확인되었으며, 현주택 소유주는 정상철씨다. 이 덕은 원래 초계정씨 관동파중 향동파의 종가택인데 조규승이라는 이름은 정상철씨의 어머니 함자이며 문화재자료로 지정을 받을 당시에 어머니가 호주였기에 조규승 가옥으로 된 것이라 했다. 예전에 건물 뒤편에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도기념물 제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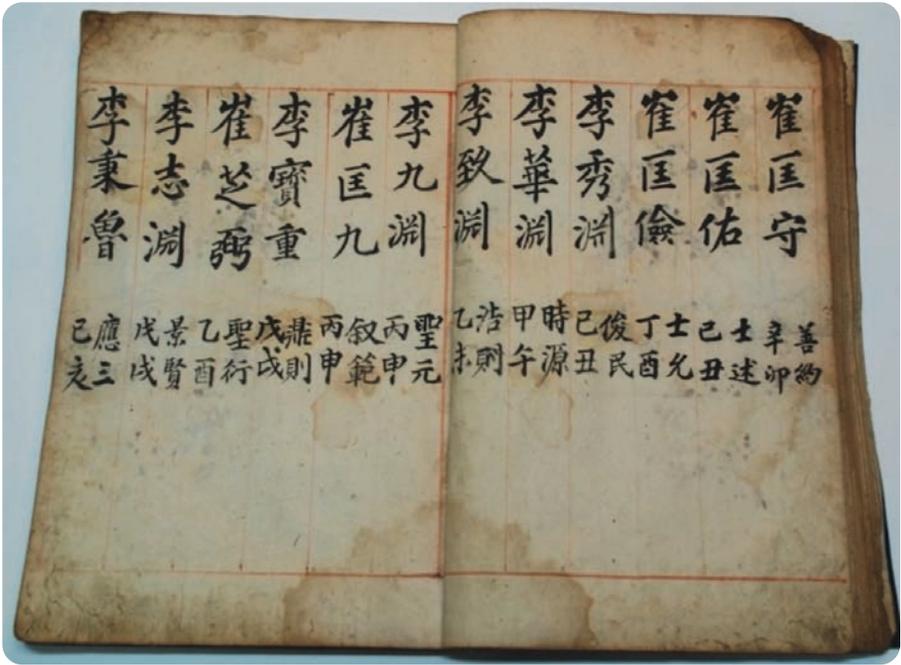
## 동해신묘

東海神廟

동해신묘가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미 고려시대에 양양에 동해신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초기 사전(祀典)이 정비되면서 중사(中祀)로 제정된 점을 상기할 때 이 무렵을 전후해서 정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서해의 풍천, 남해의 나주(지금의 영암)와 함께 우리나라 삼해의 해신에게 국태민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축을 내려 보내어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조선 경종 2년(1722)과 영조 28년(1752)에 양양부사 채팽윤(蔡彭胤)과 이성억(李聖億)에 의해 각각 중수 되었으며, 정조 24년(1800)에는 어사(御使) 권준(權駿)의 상주(上奏)와 강원도관찰사 남공철(南公轍)의 주장으로 재차 중수되었으나 순종 2년(1908)에 일본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해 철폐되었다.

1993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정전 1동이 복원되었으며, 정전 뒤편에 1800년 남공철이 지은 「동해신묘 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紀事碑)」가 남아있다.

2000년 1월 22일 일자로 강원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도문화재자료 제154호

## 기구회첩

耆舊會帖

양양고을의 사대부가문의 학자들이 고대로부터 전래되는 문화전통을 계승하면서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고자 영조 36년(1761) 11월 낙산사 승방에서 기구회를 결성 합의 선포하고 함평후인 이형익이 서문(序文)하였으며 지금까지 창회의 후손들이 이 회를 계승하고 매년 회합을 계속하고 있다.





영혈사는 양양읍 화일리 323번지의 설악산 관모봉 아래에 위치하며 신라 신문왕 9년(689)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 조선 숙종 16년(1690)에 취원대사(聚遠大師)가 중건하고 영천(靈泉)이라 개칭하였으며, 숙종 42년(1716)에는 학천대사(鶴天大師)가 사찰의 북쪽 10여리에 학소암(鶴巢庵)을 지었는데 순조 26년(1826)에 폐지되었으며, 고종 24년(1887)에 知和, 道允스님이 영천사를 중수하고 절의 이름을 다시 영혈사라 하였다. 영혈사의 원통보전은 원래의 자리에서 절의 좌측 앞쪽으로 이전 복원되었는데, 정면 세칸, 측면 두칸, 훔쳐마 팔작지붕의 굴도리집이며, 그 외에 극락보전(極樂寶殿)과 요사채, 산신각 등의 부속건물이 있다. 또한 영혈사의 입구쪽에 석종형의 팔각원당형 등 화강암제의 부도 3기가 있는데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도문화재자료 제166호

## 영혈사 아미타불도

靈穴寺(전통사찰) 阿彌陀佛圖



도문화재자료 제119호

## 서림사지 석조비로사나불좌상

西林寺址 石造毘盧舍佛坐像

이 불상은 삼층석탑과 함께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교정에 보존되어 있는데, 원래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200m떨어진 논에 있던 것을 1965년 당시 교장과 주민들에 의해 현재의 위치에 이전되었다. 불상은 불두(佛頭)가 결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손상이 많으나 대좌의 조각수법에 매우 우수하며 조각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략 9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현재 총 높이 240cm이며, 불상은 현재 높이 125cm이다. 불상과 석탑이 있었던 서림사지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각종 사료에 “서림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마을 명칭도 서림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서림사는 통일신라때 창건되어 늦어도 조선 전기까지는 존속했던 사찰이며, 이웃 하고 있는 선림원지와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 석탑은 옆에 위치한 석불좌상과 함께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교정에 함께 보존되어 있는데, 단층기단위에 세운 삼층석탑으로 처음 이전 시에는 불상과 나란히 있었으나 1994년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뒤로 4m정도를 옮겼는데, 탑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석탑 표면의 여러 곳에 긁힌 흔적이 남아있다.

석탑의 높이는 283cm, 지대석 높이 32cm이고 3층 옥개에 붙은 노반의 상면 중앙에는 방향의 찰주공이 있다. 별도의 석재로 만들어진 노반의 상부에는 원형의 찰주공이 남아 있다.

이 석탑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볼 때 고려시대 후기에 속하는 석탑으로 추정된다.

도문화재자료 제120호

## 서림사지 삼층석탑

西林寺址 三層石塔



도무형문화재 제25호

## 양양 수동골상여소리

양양군 남단부에 위치한 현남면 입암리를 중심으로 화상천이 흐르고 화상천을 발상지로 한 유역에는 들판이 펼쳐져 상하 좌우로 예닐곱 촌락이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수동골은 서로 인접하여 마을이 형성된 관계로 예부터 늘 왕래 하며 농경과 관혼상제 등을 함께하는 이웃 생활권으로 오늘 까지도 유지 이어오고 있다.

이 수동골은 보수적이고 전형적인 농촌 전통마을로 지형적으로 외지인구의 유입이 적었고, 영농방법의 변화, 관혼상제, 생활풍속 등의 현대화가 아주 늦었던 관계로 전통 민속의 희석이나 변질, 변형 없이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마을로 오늘날 까지도 우리의 고유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온 마을이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입암리 지역에 밀양두라고 하는 상두계(상여를 매는 사람)에 의하여 전통장례 방법으로 장사를 지내는 과정을 재현하였으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입암리 지역에서는 밀양두의 상두계가 운영되었다.



‘상복골 농요’는 송천 주변의 좁은 들이나 골짜기의 다락논에서 주로 불려지던 산간지방의 농요로서 가락은 정적이며 사실은 지역의 명소나 명물들을 등장시킨 통속적이고 해학적이다. 권농을 중심으로 한 충효애향 근면과 애정 그리고 사랑을 담은 내용이 많다.

고려초부터 집단마을을 이루어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 ‘상복골 농요’는 일의 과정과 동작에 알맞고 다락논에서 일하기 적합하게 짜여져 있어 항상 힘든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에게 흥을 일으키게 하고 보람을 갖게 하는 양양지방의 대표적 농요이다.

도무형문화재 제26호

## 양양 상복골농요



## 탁장사

예전에 나라에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목재를 전국적으로 수집하고 있을 때였다. 양양과 강릉에서도 황장목을 베기 위해 부역을 하었는데 공교롭게도 현북 어성전과 연곡 삼산리 경계에 큰 황장목이 있어 베었는데 그 나무가 경계선에 놓이게 되자 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내기를 했는데, 강릉은 연곡에 사는 권장사가 먼저 지고 일어서다 주저앉았고, 양양 서면 소래의 탁구상 장사는 이 나무를 지고 서림까지 내려오자 소래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전한다. 그 후 매년 양양문화제 때 탁장사 뽑기 민속놀이를 개최하고 있다.



지석묘(支石墓)라고도 불리는 고인돌은 크고 평평한 바위를 몇 개의 바위로 괴어 놓은 고대의 거석 구조물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다. 양양지역에서 지금까지 발굴되어 남아있는 고인돌은 모두 8기인데, 그중 대표적으로 서면 범부리의 고인돌의 보존상태는 다음과 같다.

## 범부리 고인돌 凡阜里 支石墓

범부리 1호 고인돌의 덮개돌 아래 판석의 크기는 길이 2m, 너비 0.8~1.45m, 두께 40cm이다. 석관형의 하부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범부리 2호 고인돌은 덮개돌이 둘로 갈라져 있으며, 크기는 길이 2.06m 너비 0.7m, 두께 40cm이다. 덮개돌의 하부구조는 1호와 마찬가지로 판석으로 구성된 석관형의 석실이다.



## 쿵쿵산

손양면 가평리에 있는 작은 산으로 이곳에 올라 발을 구르면 북소리와 흡사한 “쿵쿵” 소리가 난다하며 쿵쿵산으로 불려지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시종을 드는 동자가 선과 악을 구별 해 주는 신기한 북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북을 인간세상에 떨어뜨렸는데 그 북이 바로 지금의 쿵쿵산에 묻혀 발을 구르면 소리가 나고, 북채는 떨어져 지금의 오산봉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명서원은 조선 인조 6년(1628) 조위한 양양부사가 양양을 조산리에 건립하였다. 원래 고려말의 충신이었던 조인벽 선생의 위패를 배향하였으나 후에 그의 넷째아들 조사(祖師)의 위패로 조인벽의 6세손인 조정(趙貞)의 위패로 함께 모시게 되었다. 처음 창건은 조산리에 하였으나 화재로 불타버린 것을 그의 제자와 후예들이 정조 10년(1786)에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에 이전 복원하였다. 그후 고종 8년(1871)에 서원철폐령에 의해 헐리게 되었으나 광무 2년(1898)에 재건을 목적으로 강원도관찰사 조종필(趙鍾弼)이 창건지인 조산리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으며, 1979년 양양지역 유림과 한양 조씨종중에 의해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1982년 지금의 자리에 사당과 강당을 건립하고 매년 음력 3월 둘째 정일(丁日)에 제례행사를 봉행하였다. 2005년 4월 5일 산불로 사당(충렬사)이 소실되었으며, 2010년 복구공사를 재개 완공하고 2011년 4월 22일 사당복원 고유제를 올렸다.

## 동명서원

東溟書院





---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양양의 역사와 문화재**

---

펴낸날 \_ 2017년 7월

펴낸곳 \_ 양양문화원 033) 671-8762

만든곳 \_ 대양프리컴 033) 257-3400

※ 본 책자에 실린 모든 이미지의 복제 및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